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63건 선정

정읍시가 시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밀접한 주요 사업 63건의 담당자와 추진 과정을 공개한다.

시는 11일 정책실명제 심위원회 열고 '2026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했다.

대상에는 △문화역사의 거리 조성 △정읍 장애인 톨볼장 확충 건립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이 포함됐다.

중점관리 대상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과 5000만원 이상 연구용역, 많은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이다.

시는 선정 사업의 목록과 세부 내용을 정읍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사업별 추진 상황도 꾸준히 갱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넓히고 행정의 개방성과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17억원 들여

양돈농가 냉방 지원

정읍시가 장기화하는 폭염으로부터 돼지를 보호하고 양돈농가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농장별 여건에 맞는 냉방·사육관리 장비를 지원한다.

시는 지역 양돈농가 16곳을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축산 패키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17억원으로 기금 5억원과 시비 3억원, 융자 5억원, 농가 부담금 4억원으로 구성됐다.

지원 장비는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추는 냉각판(쿨링패드)과 냉풍기, 사료를 자동으로 공급해 일손을 덜어주는 모든 자동급이기 등이다. 축사의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절하는 환경관리기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축산 관리체계도 농장별 여건에 맞춰 지원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자염 (煮鹽), 국가유산 도전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추진, 주민 협의체 열고 소금 생산·계승·보전 방안 논의

고창군이 지역 어촌마을에서 행해지는 소금생산 방법인 '자염(煮鹽)'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심원면 사등마을 자염체험관에서 군 관계자와 용역사, 전문가, 마을 주민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 자염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주민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고창 자염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용역' 추진상황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주민협의체의 협조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염 생산일정 협의는 물론, 화력 조절 등 핵심 생산 기술 전수법을 자료화하는 등 주민협의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강조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총 10억원(국비 7억원, 지방비 3억원)의 예산이 3년에 걸쳐 지원된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생산환경 정비와 부대시설 설치 등 인프라를 대폭



개선하고, 체험프로그램·특화상품 개발, 다큐멘터리 제작 등 콘텐츠 확충에 대대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 자염은 약 1,400년 전 백제 시대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선사가 도적들에게 소금을 굽는 법을 가르쳐 생계를 돕기 시작한 데서 유래했다.

고창갯벌의 바닷물을 끓여 만들어 미네랄이 풍부하고 쓴맛이 없으며, 은혜를 갚기 위해 소금을 바쳤다는 '보은염' 설화가 전해지는 등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다.

고창군은 올해 안으로 해양수산부에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자염은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어업유산"이라며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통해 전통 어업의 맥을 잇고 어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농업의 미래를 세우다

농업농촌 발전 염원 담은 농업인학습단체 상징탑 제작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11일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광장에서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다짐하는 농업인학습단체 상징탑 제작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작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한국농촌지도자부안군연합회, 생활개선부안군연합회, 4H본부, 4H연합회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학습단체장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상징탑 건립을 축하했다.

이번에 건립된 상징탑은 단순한 돌



이 아니라 부안군 4개 농업인학습단체가 오랜기간 농업기술보급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앞장서며 부안농업의 굳건한 뿌리가 되어온 성과와 위상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후변화

와 농촌 고령화 등 어려운 영농환경속에서도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 부흥을 이끌어내겠다는 농업인들의 확고한 의지와 열원이 담겨 있다. 상징탑은 풍요로운 농촌과 화합, 선도적 리더십을 형상화해 큰 호응을 얻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축사를 통해 '그 동안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라며 '오늘 제작한 상징탑이 농업인들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첨단과학 영농시대를 선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대응 위한 세부사항 논의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추진을 위해 지역교육혁신협의체를 구축하고, 지난 10일 고창교육지원청 정책협의실에서 '고창교육지원청 지역교육혁신협의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제1유형) 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고창교육지원청 실무위원을 비롯해

고창군 지자체 관계자, 고창군의회 의원, 관내 초·중등 교장단 대표,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 개요를 안내하고, 필수 과제 및 자율과제 선정에 관한 지역 의견 기초자료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향후 학부모·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의견수렴 절차와

세부 추진 일정을 논의하는 등 '고창형 교육혁신선도지역'의 비전을 정립하고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창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교육혁신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국가예산 막바지 대응

권익현 군수, "국가예산 확보·취약계층 보호·폭염 대응 강조"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1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막바지 대응과 신규시책 선제 발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 군민이 체감하는 친절행정 시스템 구축, 폭염·가뭄 대응 및 읍지연습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권 군수는 먼저 "2027년 국가예산 정부안 편성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 만큼, 마지막까지 기획예산처 심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군 핵심사업이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사업 필요성과 논리적 타당성, 지역 과급효과 등을 보완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규시책 발굴과 관련해 "신규시책 발굴은 부안 미래를 준비하는 첫 단추"라며 "차년도 국가예산 신규시책을 조기에 발굴하고,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미리 이행해 정부의 재정 확대와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도 당부했다.

권 군수는 "폭염과 방파이 겹치는 여름철에는 홀몸 어르신,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

다"며 "관련 부서와 읍·면에서는 방학 중 아이돌봄,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이 현장에서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연결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친절 행정에 대해서는 단순한 친절 강조를 넘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군수는 "직원들에게 친절을 강조하는 것만이 아닌 교육, 점검, 개선, 보상이 연계되는 체계적인 친절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행정담당관을 중심으로 민원업무 직원의 친절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방문·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제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여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폭염·가뭄 대응과 읍지연습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권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행정의 최우선 책무"라며 "전 부서가 국가예산 확보와 민생 현안 대응, 폭염·가뭄 대응, 읍지연습 준비에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업무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제때 물 걱정 덜었다’ 현장 농업인들 안도

고창 농어촌공, 가뭄 극복 위해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와 합동대응
운곡댐 추가방류로 농업용수 일 3만톤 확보 아산면 등 1368ha 해갈

연일 이어진 폭염과 극심한 가뭄으로 고창지역 농경지가 수잉기(이삭이 여우는 시기) 용수 부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앞두고 있던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지사장 이진국)와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김현주)의 신속한 공동 대응으로 한시름을 놓게 됐다.

고창지사 관할 저수지의 저수율은 38.8% 수준(평년대비 57.4%)까지 떨어져 가뭄위기 '주의' 단계에 진입한 상태였다. 특히 아산면·무장면 일대는 농경지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고창지사는 한국수력원자력에 고창군 아산면에 소재한 운곡저수지에 하천방류 협조를 요청했고, 한빛원자력본부와의 업무협의를 거쳐 하천 방류에 전격 합의했다.

운곡저수지는 한빛원자력발전소의 발전용 냉각수 공급을 위해 조성된 시설이지만, 한빛원자력본부는 냉각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오는 8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발전용수 일부를 추가 방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운곡저수지에서 추진된으로 하루 3만톤 규모의 용수가 공급되어 그동안 가뭄이 어려웠던 반암·계산·구암양수장 등 3개소가 정상 가동되면서, 아산·무장면 일대 1,368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고창지사는 가뭄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저수지별 제한급수, 야간급수 등 현장 비상근무 체제를 이어가며 농업용수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